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와 현재성

오자은

서울시립대 강의전담객원교수

목차

- 1 서론
- 2 예비적 논의: 『여성문학연구』 10년간의 동향과 쟁점들
- 3 『여성문학연구』의 몇 가지 열쇠말: 박완서, 1980년대, 여성문학(사)의 계보
- 4 ‘지금-여기’ 페미니즘 지식 문화와 『여성문학연구』의 접속
- 5 결론

『여성문학연구』는 1998년 창립된 이후 1999년에 1호 창간을 시작으로 학회지 『여성문학연구』를 만 20년 동안 발간해 왔다. 이 글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한국 여성문학학회가 그동안 생산해 온 의제들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여성문학연구』가 어떻게 ‘지금-여기’의 문제와 반응하며 혹은 그 너머를 바라보며 교호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씌어졌다. 이를 위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발행된 『여성문학연구』의 학문적 기억을 돌아보았으며 그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예비적 논의로서 ‘현대문학’ 분과에 한정하여 10년 동안 『여성문학연구』의 특집 기획들과 특집 논문들, 그리고 일반 논문들을 연구 주제와 연구 대상에 따라 분류해 보았다. 또한 주로 인용된 이론가들을 살펴보고 그간의 동향과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여성문학연구』가 천착해 온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여성문학의 단절성을 벗어나 새로운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문학을 분절하거나 왜곡시키는 굴절점들이나 착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화해 온 것이 바로 첫 번째이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접근하거나 8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역사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최근 다양한 지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문학연구』가 학계 바깥의 지면들과 서로 교호하면서 한국문학 전체에 대한 재구와 재의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으로 ‘혐오’와 ‘난민’, ‘페미니즘 대중화 이슈’ 등, 『여성문학연구』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이 이전보다 ‘현재적인 이슈들’이라는 점을 살폈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진통들에 대한 『여성문학연구』의 적극적인 학문적, 이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제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재생산하며 ‘지금-여기’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데 현재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발굴과 확장의 방식이 앞으로의 새로운 10년간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문핵심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여성문학사, 여성문학연구사, 페미니즘 리부트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몇 년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라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과 이어서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 그리고 늘어난 독자층의 수요만큼 다양하게 발간된 페미니즘 서적들에 대한 호응, 『82년생 김지영』의 폭발적인 인기 등,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열풍은 한국 사회 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깥과도 연결되었다. 『82년생 김지영』의 번역가와와의 대담, 작가 조남주의 단편작을 게재하면서 ‘한국과 페미니즘’ 특집을 내세운 일본 문예지 『문예』가 창간 이후 86년 만에 이례적인 두 차례의 중편을 결정할 정도로 그 위력은 컸다.¹ 물론 문학 연구 차원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연동되었다. 매 강좌마다 100여명의 수강인원을 채운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강좌나 그 성과를 책으로 펴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들의 발간, 그에 대한 대중의 호응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 반대편엔 백래시가 우려되는 일련의 움직임 역시 있었다. ‘무뇌아적 페미니즘이 IS보다 위협하다’는 칼럼니스트의 발언이 있었던 2015년은 페미니즘 백래시의 원년이며, 이미 백래시가 시작되었다는 지적²처럼 현재 한국 사회/문화/문학계는 여러 갈래의 힘들과 반발들이 동시에 얽혀있는 복잡한 장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에노 치즈코와 같이 한국 여성대중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은 페미니즘 이론가의 작업에 대한 비판이나 반성적 성찰³ 역시 제기되었다.

1 한국과 페미니즘 특집 다룬 일 문예지 인기에 긴급 증쇄, 연합뉴스, 2019.8.22.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2059800073?input=1179m>

2 허윤, 「페미니즘 2.0」,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453쪽.

최근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여러 시도들은 바로 이러한 한국의 ‘현재’를 설명하려는 학적/문화적 기획으로 읽힌다. 2019년 6월에 있었던 학술대회 주제인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동아시아적 유동과 변환”의 기획 의도에서도 밝히듯, “한국발 페미니즘의 지식이 된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분석하고 트랜스내셔널한 현상으로서의 미투 운동을 검토,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 대중문화의 향방 역시 진단”한다는 학회의 방향성은 이를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작게는 2019년 8월 개최된 창립 20주년 기념 라운드 테이블을 들 수도 있겠다. “여성문학연구, 누가 어떻게 해왔고 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학문후속세대인 젊은 연구자 23명이 모여 자신의 학문적 관심사와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여성문학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그리고 여성연구자로서 활동하는 어려움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인 소회까지 털어놓았다. 이들이 이 자리를 통해 ‘미투 운동’이나 ‘##계_내_성폭력’ 등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들에 대한 반가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도 끊임없이 느껴지는 어떤 불편함을 어떻게 연구로 정향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들을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아카데미의 장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여기’의 문제와 연동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 바로 그 현재성을 보여준다. 여성문학연구가 “현재적 문제의식”과의 접속, “지금-여기의 여성들의 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지적⁴은 원론적이지만 타당하다. 이는 그동안 한국여성문학학회가 창립 이래 여성문학/문화와 관련하여 현재적인 의제를 생산함과 동시에 그것을 아카데미 제도의 장 안으로 견인함으로써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 공론화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표출하려 했다는 점⁵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 글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한국여성문학학회가 그동안 생산해 온

-
- 3 김주희, 「우에노 치즈코의 젠더-본질주의 비판」,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 4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제37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6쪽.
 - 5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9쪽.

의제들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학회가 어떻게 ‘지금-여기’의 문제와 반응하며 혹은 그것 너머를 바라보며 교호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씌어졌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인 10년을 주기로 학문적 방향성이 반드시 유의미하게 바뀐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한국여성문학학회와 『여성문학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해 검토해 보는 지점으로서 페미니즘 문학에 대한 학적/대중적 호응이 가장 폭발적으로 뜨거운 ‘지금-여기’는 나름의 시의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이 글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발행된 학회지 『여성문학연구』의 학문적 기억을 훑아보았으며 그 성과와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예비적 논의: 『여성문학연구』 10년간의 동향과 쟁점들

우선 예비적 논의의 차원에서 2장에서는 『여성문학연구』의 2010년 23호부터 가장 최근호인 2019년 47호까지 현대문학 논문에 한정하여 그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을 살피기로 한다. 특히 현대문학의 경우에 상당히 많은 편수의 논문이 실려 있을 뿐더러 학회의 기획의도가 크게 드러나는 특집 논문 외에도 자유 투고에 해당하는 일반 논문의 편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구성부터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기본적으로 검토할 항목들은 각 영역별 논문 편수와 주요 연구 대상, 주요 페미니즘 이론가들의 인용 편수, 학회지의 특집 기획 및 주제별 분류 등이다. 먼저 현대문학 논문은 총 230편이 실렸으며,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를 거칠게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⁶

소설 연구	94편
시 연구	30편

6 당연히 (문학)논문의 연구대상은 더 이상 소설, 시, 희곡, 수필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로 구분되지 않으며, 동시에 여러 장르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잡지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되 해당 잡지에 실린 연재소설을 분석하거나 인물론을 중심으로 하되 해당 인물의 작품을 분석하는 경우처럼 연구 대상을 하나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논문을 살피고 주된 연구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여성문학연구』의 구성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연구 대상을 다소 거칠게 ‘범주화’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희곡 연구	3편
영화 연구	13편
인물(인물론 및 인물 발굴) 연구	11편
번역 연구	9편
TV드라마 연구	2편
기관지 및 잡지 연구	18편
신문 연구	5편
사회/문화/담론/제도 연구	21편
여성 글쓰기 연구(노동자 수기, 일반인 글쓰기 기록)	4편
여성주의 이론 연구	6편
매체 변용 연구	4편
여성문학(사) 검토 연구	6편
여성 비평가 연구	1편
만화 연구	1편
영화/애니메이션/소설 등 혼합 장르 연구	1편
수필 연구	1편

표 1. <연구대상에 따른 분류>

연구 대상인 소설가/시인/극작가/문화인 등의 경우 그 목록이 총 100여명 가까이 이를 정도로 다양하여 목록 작성이 쉽지 않지만⁷ 위에서 보듯 소설 대상 논문이 총 94편으로 수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의미하게 눈길을 끄는 것은 두 명의 소설가가 총 소설 대상 논문 편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박완서를 다룬 논문이 20편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박경리를 다룬 논문이 13편이었다. 식민지 시기부터 계속 활동한 여성 작가로는 최정희가 6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장덕조가 3편 연구되었다. 식민지 여성 작가로는 강경애를 대상으로 한 논문이 4편, 그리고 김명순이 3편 연구되었다. 90년대 작가로는 공지영을 다룬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김인숙(3편)이 이었다. 그 다음 현대 시 관련 논문으로는 고정희를 다룬 논문이 6편으로 많았으며 그 뒤를 허수경(3편)이 이었다. 남성 작가로는 채만식이 4편, 김남천

7 검토한 결과 집계된 숫자는 106명이다. 이 숫자는 적어도 논문 내에서 핵심 분석 대상으로 등장한 인물들의 숫자이다.

3편, 황석영 3편, 김유정 3편 등이 있었고 이외에 최인호, 이기영, 정비석, 이태준, 이문구, 윤홍길, 박태원, 김기림, 김사랑, 박범신, 김내성, 이청준, 하종오 등이 연구되었으나 여성 문인에 비해서는 연구 대상 편수가 매우 적었다.

신문 연구의 경우에는 『제국신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았다. 잡지의 경우 총독부 기관지, 근우회 기관지인 『근우』, 교지 『이화』, 『신여성』, 『여원』, 『여학생』, 『사상계』, 『또하나의 문화』 등이 연구되었다. 인물론(인물 연구)의 경우에는 허정숙, 정충량, 문예봉, 윤금숙, 지하련, 최승희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만화 연구는 신일숙의 『아르미안의 네 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문인이 아닌 일반인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70년대 여공수기(석정남, 장남수, 송효순 등)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또한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에 놓는 연구로는 미국과 한국의 페미니즘 비교 연구⁸, 정동연구와 페미니즘의 결합⁹, 70년대 페미니즘 이론과 번역의 문제¹⁰,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 연구¹¹ 등이 있으며, 여성문학(사)를 검토하는 연구로는 여성 작가의 지적 계보를 탐색하거나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를 작성하는 논문, 문학잡지를 대상으로 여성문학을 점검하는 논문¹², 여성번역문학사를 정립하려는 논문¹³ 등이 있었다.

위에서 보이다시피 페미니즘 이론 자체를 중심에 놓는 연구의 편수는 적지

8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9 권명아, 「비교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적 의제: 여자 떼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힘」,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0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1 조현준,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2 김양선, 「근대 여성 작가의 지식 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임지연, 「여성문학트러블」,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김양선,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연구, 2015.

13 김연숙, 「가정소설의 번역과 젠더의 기획—여성번역문학사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만, 『여성문학연구』는 외국 이론의 인용 자체는 적지 않은 편이다. 참고문헌을 기준으로 하여, 주요 이론가들이 몇 편씩 논문에 등장했는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디스 버틀러	27편
우에노 치즈코	23편
지그문트 프로이트	19편
미셸 푸코	15편
줄리아 크리스테바	12편
리타 펠스키	11편
마사 너스baum	10편
슬라보예 지젝	10편
조르조 아감벤	10편
질 들뢰즈	9편
앤소니 기든스	7편
가스통 바슐라르	7편
R. W. 코넬	7편
자크 랑시에르	6편
이-푸 투안	6편
린다 맥도웰	6편
피터 브룩스	6편
가라타니 고진	6편
피에르 부르디외	6편
그 외(벤 싱어, 발터 벤야민, 루스 이리가레이, 바바라 크리드, 베네딕트 앤더슨, 엘리자베스 그로츠, 데이비드 하비, 호미 바바, 게일 루빈, 재클린 샬스비)	4편 이상~6편 미만

표 2. <이론가 별 인용 편 수>

푸코나 프로이트, 바슐라르, 부르디외나 가라타니 고진과 같이 비교적 ‘전통적인’ 문학/문화 이론가들이 지속적으로 인용되는 가운데, 여성주의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와 우에노 치즈코가 가장 높은 인용 편수를 보여주었다. 사실 문학/문화 분석 방법론으로서의 이론은 연구 대상 작품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어떤 확실한 경향성이나 시대적인 변곡점을 찾기 어렵지만 『여

성문학연구』의 경우 비교적 최근 번역서에 대해 빠르게 반응하는 편이었다. 예를 들어 주디스 버틀러의 경우 『젠더 트러블』과 『불확실한 삶』이 2008년 번역 발간되면서 가장 많은 수가 인용되었다. 우에노 치즈코의 경우 1999년에 번역 발간된 『내셔널리즘과 젠더』가 꾸준히 인용되는 가운데, 2013년 『여성혐오를 혐오한다』가 번역 발간되면서 인용 수가 급속하게 늘었다. 우에노 치즈코가 국내 여성주의 연구자들에게 알려진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성 혐오’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매우 대중적인 페미니즘 이론가로 소개되면서 연구 영역에서도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가 다수 인용되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역시 자주 인용되었는데 주로 2004년에 번역 발간된 『검은 태양—우울증과 멜랑콜리』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리타 펠스키는 1998년 번역 발간된 『근대성과 페미니즘』이 계속 인용되는 가운데 2010년에 번역 발간된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이 함께 주로 인용되었다. 이외에 감정, 정동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2015년 번역 발간된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이 많이 인용되었으며, 남성성 논의와 관련하여 R.W.코넬이, ‘문학과 정치성’ 논의와 관련하여 자크 랑시에르와 슬라보예 지젝이 주로 인용되었다. 린다 맥도웰의 경우는 젠더 지리학적 논의에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었으며, 피터 브룩스는 2013년 번역 발간되었던 『멜로드라마적 상상력』이 주요 인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여성문학연구』의 논문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성문학연구』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작가, 작품 및 제반 문화 형상을 연구한 논문과 서평, 기타 학술기획물을 싣는다”는 원칙 아래 한국여성문학학회가 1998년 창립된 이후 지난 21년간 학회지를 발행해 왔다. 김양선은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창립 심포지엄 당시, 여성문학 연구장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위치를 점검하는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총 27호의 학술지와 10여 년 간의 학술대회 주제를 검토하였는데, 해당 논문에서 김양선은 학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국문학 연구 장의 쟁점을 읽어내면서 동시에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전유하고 있다’고 정리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2011년까지 10여 년 동안 연구 주제와 영역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즉, 90년대의 키워드였던 (탈)근대성, (포스트)민족주의나 탈식민주의 등에서 점차 제도와 매체, 문화 연구로 문학 연구의 영역이 확

장되고 있다는 진단¹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과 확장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며 그러한 변화나 움직임 자체가 일종의 경향성이 되어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 10년간의 연구 주제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 그렇다면 먼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여성문학연구』의 특집 주제를 일별해보도록 하겠다.

- 23호: 4.19 혁명과 여성
- 24호: 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지성의 창출
- 25호: 한국 근현대사와 박완서
- 26호: 21세기 여성문학/문화 연구의 쟁점과 전망
- 27호: 특집 없음
- 28호: 젠더와 번역: 여성 지의 형성과 변전
- 29호: 1. 몸과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정치적 상상 그리고 사상계
2. 사상계와 그 혹은 그녀의 시대
- 30호: 한국 남성성의 문화적 (재)구성과 그 계보
- 31호: 제국신문, 근대 여성의 지식/담론/재현의 장
- 32호: 여성과 빈곤
- 33호: 불온과 섹슈얼리티
- 34호: 공론장으로서의 신소설과 젠더기획
- 35호: 재난시대의 슬픔과 애도
- 36호: 우리 안의 내전—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
- 37호: 박정희 시대와 젠더
- 38호: 일하는 여성-여성 노동에 대한 여성주의 인문학의 성찰
- 39호: 정동의 힘과 주체화의 네트워크-정동 이론과 젠더 연구의 새로운 접합을 위하여
- 40호: 특집 없음
- 41호: 특집 제목 없음
- 42호: 여성주의적 지식과 지식체계

14 김양선, 앞의 글, 651쪽.

- 43호: 1980년대와 여성문학: 광장에서 불어온 바람과 여성 글쓰기의
변이과정
- 44호: 공간과 젠더정치
- 45호: 1980년대, 박완서 문학과 사회
- 46호: 역사와 여성의 교차: 여성 글쓰기의 젠더 역학
- 47호: 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현재성과 그 너머

위의 학술지의 특집 주제는 대부분 발간 전에 개최된 학술 대회와 연동되어 있다. 특집 주제 역시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만큼 각 주제들이 서로 겹치기도 하지만 굵직하게 범주화해본다면, 비교적 전통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여성적 글쓰기와 여성 지성의 문제(24호, 29호, 31호, 42호, 46호)와 섹슈얼리티의 문제(33호) 경제 체제/신자유주의와 여성 문제(38호, 32호), 여성 노동자나 일반 여성들의 글쓰기 연구(23호, 37호), 여성문학 검토 연구(26호), 젠더와 번역의 문제(28호), 한국 남성성 연구(30호), 젠더와 정치성(23호, 37호, 43호), 페미니즘 문화 연구(39호, 47호), 특정 작가 특집(45호) 등으로 나뉘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집이 아닌 일반 투고 논문까지 포함한다면 총 230편의 현대문학 논문에서 다시 주제를 분류해 볼 수 있겠다. 여성주의 이론을 적용한 개별 작품론이나 주제론을 기본으로 하고, 젠더 지리학적 연구, 여성 인물론 및 여성 인물 발굴 연구, 페미니즘 이론 및 페미니즘 지식 장 연구, 박완서 소설 연구, (탈북)이주 여성 형상화 문학 연구, 여성 노동 문학 연구, 번역 연구, 정동 및 감정 연구, 여성문학사 연구, 퀴어 문학 연구, 특정 시기, 사건과 관련한 연구(4.19 혁명, 박정희 독재 정권,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월호 사고 등) 등으로 다시 나뉘인다.

전술한 것이 평면적으로 주제들을 범주화한 것이라면, 시간 순서대로 살펴 보았을 때에는 35호를 기점으로 특집 주제의 변화가 보인다. 35호의 주제인 “재난 시대의 슬픔과 애도”는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겪고 난 뒤 기획된 특집이며 이후 36호의 주제인 “우리 안의 내전—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은 2015년부터 대중적으로 논의가 확대되어 온 여성 혐오의 문제와 접속하고 있다. 또한 특집 주제로는 기획되어 있지 않지만 탈북 여성이나 이주민 여성에 대한 연구가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호인 47호의 “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현재성과 그 너머”는 동아시아적 현상으로 확대된 미투 운동이나 페미니즘 대중화에 대한 직접적인 교호 관계 아래 쓰여졌다. 이러한 변화는 서평 기획에서도 드러난다. 『여성문학연구』는 매 호마다 화제가 된 중요한 여성주의 책에 대한 서평을 싣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간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다면, 서평 목록 역시 전반기에는 주로 페미니즘 이론가, 서양서의 번역본 이나 여성문학 연구서를 주로 다루다가 이후로 갈수록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한 대중 비평서나 대중적 페미니즘 교양서까지 서평 대상으로 아우르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학문적 주제가 지금-여기, 현재의 여성 문제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학회나 『여성문학연구』의 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3년 사이 이주 여성, 탈북(난민) 여성, 위안부 문제나 여성 노인 이슈 등이 연구 논문으로 계속 제출되고 있는 흐름 역시 전술한 『여성문학연구』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여성문학연구』의 몇 가지 열쇠말: 박완서, 1980년대, 여성문학(사)의 계보

그렇다면 각 시대의 의제와 학회의 의제, 연구의 의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으며 그 현재성은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가? 지난 10년간 『여성문학연구』에 제출된 수백편의 특집 논문들과 일반 논문들의 경향성을 몇 가지로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우선 여성 소설가나 시인의 작품에 대해 여성주의 이론을 방법론으로 적용하여 기존과 다른 해석을 도출하는 ‘개별 작품론’이나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거나 평가가 미진했던 여성 인물을 발굴하여 복원하는 작업 등의 ‘인물론’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흐름이나 지향성과 무관하게 전통적으로 계속되어 온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통일된 길드에 속하지 않은 각각의 개별 연구자들이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출한 논문들이 어떤 특정한 경향성으로 묶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학회지 투고 논문의 특성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10년간 『여성문학연구』에 제기된 다양한 의제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시되거나 꾸준히 드러

나는 연구자, 또는 학회지의 문제의식을 추려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뚜렷한 패러다임이나 그것의 전환이라기보다, 여성문학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의 공통된 무의식이자 욕망의 움직임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여성문학연구』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몇 가지 경향성을 추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을 이루는 몇 가지 열쇠말을 살피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지난 10년간과 대비되어 가장 두드러지게 자주 등장한 몇 가지 의제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경향성을 살펴보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특집 주제로만 두 번 기획되었으며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박완서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김양선의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에서 분석한대로 『여성문학연구』 창간 이후 2011년까지 가장 많이 등장한 연구대상은 총 10편의 논문에 등장한 박완서이지만, 이 글의 분석대상과 겹치는 2011년 박완서 특집을 제외하면 2009년까지 박완서 논문은 5편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박완서 연구는 지난 10년간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러한 양적 증가에는 박완서의 타계가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박완서는 2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난 10년간 20편이나 논문이 제출될 만큼 『여성문학연구』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작가라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2010년~2019년, 10년의 기간 동안 그 시작과 끝에 위치한 ‘박완서’라는 키워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여성문학연구』의 경향성을 살피는 첫 걸음이 되리라 본다.

우선 박완서에 대한 『여성문학연구』의 첫 번째 특집 기획이며 한국여성문학학회 25회 학술대회 주제였던 “한국 근현대사와 박완서”부터 살펴보자. 학술대회의 주제는 그대로 학회지까지 이어졌는데 2011년 25호 특집에 실린 이선미의 글은 전체적인 취지를 잘 보여준다. 이선미는 박완서 연구란 곧 “박완서 소설이 해석되는 한국 사회의 담론적 흐름에 대한 연구” 일 수 있으며, “박완서 소설이 한국사회의 어떤 현실적 문제를 서사적으로 재현하고 비판하는가를 따져보는 자리”¹⁵ 라고 말하면서 박완서 연구가 박완서라는 개인에 대한 탐구를 넘어 박완서라는 키워드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복잡한 과정과 교호하는 탐사 작업일 수 있

음을 설명한 바 있다. 박완서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같은 호 특집에 실린 이상경의 『박완서와 근대문학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글은 “근대 문학사를 쓴다면 박완서 작가를 어느 자리에 놓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서술할 것인가?”¹⁶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특히 이 글에서 이상경은 기존의 문학사 기술 저서인 『한국문학사』에서 박완서를 70년대 작가군으로 묶어놓거나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여성적 시각과 여성주의의 확대”라는 범주에 박완서를 한정하는 기술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¹⁷ 이는 논문의 제목에서부터 ‘박완서’와 ‘근대문학사’라는 두 키워드를 나란히 병행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는 바, ‘유명한 여류 작가인 박완서 소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와 관계된 개별 작품론이나 주제론을 넘어서 이제 ‘박완서’라는 키워드로 ‘한국 근대문학사와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년의 시차를 둔 2018년 한국여성문학학회는 다시 한 번 박완서 특집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 학술대회의 성과로 제출된 것이 45호 기획 특집인 “1980년대, 박완서 문학과 사회”이다. 여기에 실린 김은하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에서는 2011년의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박완서의 여성해방소설이 여성문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여성들의 글쓰기가 종래의 규범과 인습에 대한 순응이나 현실도피적인 즐거움이 그치고 남녀평등의 이상을 가진 여성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토대로써 발견되었기 때문”¹⁸이라는 분석이 그러하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박완서를 ‘여성문학사’에서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15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30쪽.

16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0쪽.

17 물론 이 글은 박완서 문학의 중심이 기존에 별로 조명되지 않았던 1990년대에 더 가까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주장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문학사 서술 방식에서 박완서가 어떻게 편의적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깊다.

18 김은하,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1980년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8쪽.

가에 대한 의식이며, 근대 문학사나 근현대사의 자장 속에서 박완서의 위치와 의미를 정체화 하려는 작업은 이제 ‘여성문학사’라는 새로운 계보 짜기로 변전되었다는 것이다. ‘박완서’라는 대표 작가를 특정 시대군에 국한시키거나 ‘여성주의 작가’와 같이 문학사의 정해진 자리에 위치시키는 식으로 계토화시키는 기존 문학 연구의 관습을 벗어나 여성문학사의 연속적인 계보 짜기와 그 의미에 대한 논의로 심화되고 있다. 이는 여성문학연구서는 많지만 ‘여성문학사’는 드물었다는 측면에서 지지난 10년 동안 여성문학사 연구에 대한 여러 필요성이 제기된 바,¹⁹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이루어진 여성문학사 서술의 성과들²⁰이 누적되면서 여성문학사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을 보여준다.²¹

그러한 차원에서 위의 학술대회가 1980년대를 연구의 시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여성문학연구』의 지난 10년 동안 중요하고도 새로운 키워드이자 두 번째 열쇠말인 ‘80년대’와도 연결된다. 창간 이후 2010년까지, 지지난 10년과 최근 10년간의 차이 중 하나는 바로 80년대 연구가 확연하게 늘어난 것이다. ‘80년대 문학 연구’는 지난 10년간 새로이 등장한 강력한 열쇠말이다. 이는 최근 10년 동안 ‘시간적으로 연구적 거리가 확보된 대상을 논문으로 작성하는 국문학계 특유의 관행’이 다소 무너지기도 했고 반대로 그만큼 시간이 흘러 80년대가 ‘과거’가 됨으로써 주요 연구 대상의 목록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성문학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80년대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숫자 자체가 상당히 많아지기도 했으며, ‘80년대 연구’에 한정된 학술 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는 것이 큰 특이점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전술한 2018년 36회 정기학술대회 주제였던 “1980년대, 박완서 문학과 사회”이며 다

19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91쪽.

20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사, 2010;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등이 있다.

21 실제로 성균관대학교의 경우 <현대여성문학론>이 학부 국문과 전공 수업으로 지정되는 등의 주목할 만 한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여성문학과 관련한 수업들이 대개 ‘문학과 여성’이나 ‘문학과 젠더’의 형태로 느슨하게 개설되었던 것에 비해 “여성문학론”이라는 타이틀로 전공 수업이 지정된 것은 유의미한 변화라 여겨진다.

른 하나가 43호 특집이었던 “1980년대와 여성문학: 광장에서 불어온 바람과 여성 글쓰기의 변이과정”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특집에 게재된 논문들의 공통된 고민 지점들이 ‘80년대를 어떻게 의미화 할 것인가’의 문제를 여성문학(사) 계보의 연속성을 짜는 작업으로 연결시킨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43호에 실린 송인화의 「역사를 읽는 80년대식 문법과 여성역사의 모순적 공존」에서는 80년대라는 당위적 노동 서사의 문법에 포섭되지 못한 여성 이야기를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이선옥의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에서는 “여성문학 계보의 연속성을 고민하면서 이 시기 여성문학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²²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1980년대 여성문학논쟁이 고민해왔던 여성 주체와 문학적 재현의 문제는 여성, 민족, 계급의 복합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복합성에 대한 고민은 민족민중문학이 꿈꾸었던 단일한 주체에 대한 과잉상상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민족주의와 갈등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이 시기의 여성문학논쟁은 차이와 다성성의 지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 운동의 가부장성과 끊임없이 불화하고 전복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주체의 복합성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여성문학도 개인과 사생활의 발견이라는 공사이분법적 단절론에서 벗어나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이선옥은 80년대 민족민중문학과 90년대 여성문학 사이의 “공사이분법적 단절론을 여성문학의 재해석을 통해 극복하려 하는 시도들”²⁴을 언급하면서 1990년대 여성문학과 80년대 문학을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

22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1쪽.

23 위의 글, 7-8쪽.

24 위의 글, 9쪽.

한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시도는 마찬가지로 노동 소설의 영역에서도 이어지는데, 김복순의 「여성-노동소설의 일 계보-김인숙의 경우」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여성 학출은 존재론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더 이상 ‘엄마 이야기’에 머물거나 엄마의 기획의 ‘대상’이 아니었다. 즉 ‘엄마 서사’와 결별한다. 또 이들은 이전 시대 여성 이야기의 중요한 축이었던 ‘여성수난사’와도 결별한다. 이들은 수난보다 희망을, 도식적 전형보다 소시민성의 비판을 통해 획득되는 노동계급성을 보여 주었다. 그로 인해 남성 노동소설 작가와 다른 ‘고유한 글쓰기’가 도출되었다.²⁵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김복순은 김인숙 소설을 통해 남성 노동소설과는 다른 고유한 ‘여성-노동 소설’이라는 범주를 상정하고 그것을 역사적 형식으로서 의미화하려 한다. 넓은 자장에서 보자면 위의 논의 역시 여성문학사의 계보를 염두에 두고 남성 노동소설의 범주 안에서는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소설들을 ‘여성-노동 소설’이라는 범주 설정으로써 새롭게 의미화하고 배치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80년대 문학을 대상으로 한 특집 기획이긴 하지만 80년대 문학에 대한 작품론이나 작가론보다 80년대의 여성문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결국 80년대를 안고 여성문학사의 계보를 어떻게 연속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이 가장 첨예하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해당 두 특집 이외에도 80년대 최승자 시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물리적 죽음을 시가 어떻게 애도하는가를 살핀 김정현의 「변위의 상상력을 통한 아포토스의 주체 양상 연구」, 44호에 실린 김정은의 「광장에 선 여성과 말할 권리—1980년대 고정희 글쓰기에 나타난 젠더와 정치」 등에서 고정희의 시가 80년대 여성운동의 의미화와 연관되어 언급되는 맥락 역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밖에도 28호에 실린 허윤의 「1980년대 여성해방이론의 번역 연구」나 34호에 실린 김난희

25 김복순, 「여성-노동소설의 일 계보-김인숙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09-110쪽.

의 「1980년대 한국 여성시에 나타난 웃음과 그 시적 언어의 정치성」 등 다양한 80년대 여성문학 연구가 게재되었다.

이처럼 이는 80년대로 한정된 두 번의 특집만의 문제의식이 아니라 『여성문학연구』의 최근 10년간 행보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경향성, 혹은 여성 문학 연구자들의 소명감이라고 읽힌다. 예를 들어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여성작가의 지적 계보를 탐색하는 작업”²⁶을 시도한 김양선의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또한 비슷한 예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양선의 또다른 논문인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에서 전후부터 80년대 여성 작가들의 후일담 소설까지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여성적 감상이 “열등한 것으로 저평가 될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반응으로 여성문학의 계보를 잇는 문학사 서술의 방법론으로 재론되어야 할 필요”²⁷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여성문학사 계보 짜기의 방법론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로 읽힌다.

특히 이러한 『여성문학연구』에서 80년대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 시기가 여성문학사의 계보 속에 어떻게 기입되어야 할 것인지 언제나 첨예하기 때문이다. 80년대는 “여성계 역사상 유례없이 여성 억압의 기원과 정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시기”²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87년 체제 안으로 미처 수렴되지 못한 여성의 삶과 정치적 상상”²⁹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또하나의 문화’와 ‘창비’ 계열의 여성운동이 서로 길항하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여러 여성 무크지들이 등장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여성운동은 끊임없이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로부터 우선순위에 밀렸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적이었던 사회

26 김양선, 「근대 여성작가의 지식/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제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8쪽.

27 김양선,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268쪽.

28 김은하, 앞의 글, 8쪽.

29 신선훈,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구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8쪽.

진보세력 역시 그 한계를 노출했다.³⁰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 문학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민족이나 계급과 같은 거대 담론의 시대’와 “개인과 사생활의 발견이라는 공사이분법적 단절론”³¹이나 “1980년대 민중운동과 접합한 여성운동과 1990년대 여성주의문학의 대립적 사유”³²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 역시 안고 있다.

따라서 80년대와 90년대의 여성문학의 단절성을 벗어나 새로운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한 의식이 중요해졌으며, 그러기 위해 여성문학을 분절하거나 왜곡시키는 굴절점들이나 착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할 것인가를 문제화한 것이라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접근하거나 8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역사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최근 다양한 지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문학연구』의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문학연구』 바깥의 지면들과 서로 교호하면서 한국문학 전체에 대한 재구와 재의미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³

『여성문학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 이슈인 위안부 문제와도 접속하여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부터 최근의 위안부 담론까지를 탐사함으로써 ‘지금-여기’의 여성문학에 대해 논의한 이혜령의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에서도 드러난다. 33호에 실린 이 논문에서 이혜령은 식민지 섹슈얼리티와 위안부 담론을 “문지방”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면서 기왕의 연구들이 가진 문제점들이나 한계들을 언급한다. 그러나 한계를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한계를 만들었던 조건과 상황들을 다시 검토하면서 여성문학(문화)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으로서 의미화한다. 이로 인해 “지금-여기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논한다는 것은 현재와 1990년대, 식민지 시대라는 시간성을 의식적으로 서로 교차시키고 연관된 것으로 제시할 것을 요

30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호, 상허학회, 2016, 423-424쪽.

31 이선옥, 앞의 글, 8쪽.

32 위의 글, 10쪽.

33 최근 『문학과 사회』-2019년 봄호에 실린 “메타-문학사” 기획은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 준다.

청한다”³⁴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 아래 식민지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2000년대의 대중문화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최근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재 과제와도 연결시킨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지방”들은 여성 문학(문화) 연구의 한계나 결함이 아닌, 또는 여성 문학(사)을 분절 되거나 분절시키는 제한이 아니라 현재성을 가진 채 연속적인 맥락에서 의미화 된다.

4 ‘지금-여기’ 페미니즘 지식 문화와 『여성문학연구』의 접속

전술한 ‘연속성’에 대한 맥락은 결국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과거를 현재화하려는, 과거와 지금-여기의 문제를 접속하려는 『여성문학연구』, 그리고 여성문학 연구자들의 노력이라고 여겨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문학연구』에서 최근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이 이전보다 ‘현재적인 이슈들’이라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진통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문적, 이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온 ‘현재적 문제의식을 돌아보는 대상으로서의 한국 근대 여성문학/문화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³⁵에 대한 현실화는 실제로 2014년경을 기점으로 세월호 비극, 국정 농단과 정권 탄핵, 강남역 살인사건과 ‘여성혐오’, 페미니즘 대중화, 난민 이슈, 문단 내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및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한일 갈등 악화 등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의제들에 대한 『여성문학연구』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본격적으로 2015년 35호 특집 기획이었던 “재난 시대의 슬픔과 애도”를 기점으로 뚜렷해진다. 해당 호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동적 분석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이후 점점 이러한 경향은 가시화된다. 여기에서

34 이혜령,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여성문학연구』 제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9쪽.

35 이영아, 앞의 글, 16쪽.

는 이를 ‘혐오’와 ‘난민’, ‘페미니즘 대중화 이슈’로 거칠게 범주화하여 살펴볼도록 하겠다. 이상의 키워드들은 지난 시기와 달리 최근 몇 년 간 『여성문학연구』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의제들이다.

35호가 ‘세월호’로 상징되는 재난 시대에 대한 이론적, 문학적 접근이었다면, 『여성문학연구』 36호 특집 기획은 “우리 안의 내전-혐오/공감의 문화정치와 여성”이었다. 36호는 2015년 12월에 발간되었는데 이 기획은 흔히 ‘여혐’이라고 불리는 사회 현상이나 ‘이방인 혐오’ 현상이 사회 전반에 퍼지는 가운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접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품에서 여성 혐오의 흔적을 찾는 노력과 동시에 ‘여성혐오의 한국적 특성’과 같은 구체적 분석 작업이 추가되었다. 이를테면 손희정의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에서처럼 ‘혐오’와 같은 정동을 쉽게 범주화하지 않고 “혐오가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정동으로 부상하게 된 배경을 탐구”³⁶하는 연구가 그런 것이다. 이선옥의 「과학주의 시대-여성 혐오라는 정동」에서는 여성 혐오 정동의 발현 메커니즘과 그 속에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를 탐사한 바 있는데, 이는 혐오현상을 단발적이거나 일회적인 폭발이 아닌 역사적인 맥락에서 구조화된 현상으로서 이론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민’, ‘탈북 여성’도 최근 등장한 『여성문학연구』의 새로운 의제 중 하나이다. 한국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난민’, ‘탈북 여성’, ‘이주 여성’ 등의 이름으로 바뀌 불리는 소수자 여성의 이슈는 결혼 이주 여성, 탈북 여성 등의 증가³⁷와 2018년 제주도의 예멘 난민 이슈를 중심으로 정점에 올랐다. 『여성문학연구』에서 ‘이주여성-탈북여성-난민(여성)’은 크게 하나의 계열로 묶이면서 실제 현실의 이슈와 연구가 빠르게 교호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013년 29호에 실린 엄미옥의 「현대소설에 나타난 이주여성의 재현 양상」에서 서성란, 천운영, 공선옥, 김인숙 등의 소설에 나타난 결혼 이주여성의 문제

36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19쪽.

37 2018년 기준으로 남한 내 탈북인들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이 무려 74.8%로 남성보다 훨씬 많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실태조사」, 통계청 홈페이지. kostat.go.kr/

를 다룬 것을 시작으로 2016년 38호에 실린 허윤의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에서는 황석영의 『바리데기』에 나타난 탈북여성의 형상화를 통해 “소수자 되기와 그 재현의 문제를 사유해야 한다”³⁸고 말하며 신자유주의 시대의 이주여성 서사에 있어 필요한 윤리의 세목에 대해 탐구한다.

한편 김은하는 「탈북여성과 공감/협오의 문화정치학」³⁹에서 본격적으로 탈북여성을 ‘절대적 타자’로 다루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이 공감 윤리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탈북여성에 대한 재현이 혐오 경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정이 아닌 어떤 윤리가 필요한지 묻는다. 42호에 실린 김소륜의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에서는 “탈북자라는 소수자 내에서 또다시 여성이라는 중첩된 타자화를 요구받고 있는 탈북 여성”⁴⁰을 다루면서 특히 탈북 작가와 조선족 출신 작가의 소설로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있다. 이채원의 「젠더정치학의 관점에서 본 다문화 서사」, 46호에 실린 이상숙의 「하중오 시에 나타난 탈북자 형상」 등도 역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으며 전술한 연구들은 2000년대 소설을 통해 이러한 다문화 사회 속에서 절대적 타자, 중첩된 타자인 소수자 여성들에 대한 우리의 윤리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현재적인 질문을 던진다.

한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는 페미니즘 대중화 이슈에 대한 『여성문학연구』의 반응은 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여성문학연구』의 서평란에서 다루는 책들이 주로 이론서, 번역서에서 점차 페미니즘 대중서까지 그 대상을 확장한 점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최근호인 47호 특집 기획 “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현재성과 그 너머”에서는 페미니즘 대중화의 이론적 기반을 제

38 허윤,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4쪽.

39 김은하, 「탈북여성과 공감/협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40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쪽

공했던 우에노 치즈코 검토,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문단 내 성폭력 등 미투 운동 이후의 나아갈 길 등, 가장 첨예하고 현재적인 이슈를 다룬바 있다. 그뿐 아니라 한일 페미니즘의 순환과 중국의 미투 운동까지 페미니즘 지식문화의 장을 ‘동아시아’ 전체로 확장하여 그 유동성을 살폈다는 점에서, 2012년 김양선의 논문에서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차후 과제로 꼽았던 “국문학 연구의 틀을 벗어나 동아시아 여성문학”과의 접점을 찾아 여성문학의 전망을 찾아야 한다”⁴¹는 과거의 목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페미니즘 대중화의 흐름과 교호하는 것 뿐 아니라 『여성문학연구』는 이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페미니즘 리부트의 한복판에 있었던 문제적 소설 『82년생 김지영』에 대해 2017년 42호에 실린 김양선의 서평에서는 “그동안 이론과 아카데미즘의 틀에 갇혀 있던 페미니즘을 거리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중들 곁으로 가져와 생생하게 풀어냈다”⁴²는 평가를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서평은 미흡하지만 르포르타주와 본격 문학의 경계, 사회과학과 문학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82년생 김지영을 다시 문학으로 소환해 검토하고, 과연 이 소설이 한국 문학 장에서 8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페미니즘 문학의 계보와 어떤 연결 지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⁴³

최근의 페미니즘 대중화가 일회적인 ‘리부트’나 이벤트로 소모되지 않기 위해 “페미니즘 문학의 계보와 연결 지점”을 모색하고 계보화 하려는 시도는 3장에서 전술한 여성문학/문화(사)의 연속성과 계보 짜기의 작업과 연동된다. 학문과 이론, 그리고 대중 담론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호하면서 연속

41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6쪽.

42 김양선, 「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 현상—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83쪽.

43 위의 글, 284쪽.

적 맥락에서 계보를 그릴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로 그러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은 아래와 같은 진단으로 이어진다.

이쯤에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 무렵, ‘문학의 여성화’라는 평단의 질서와 비난에 가까운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페미니즘 문학 (론)과 여성작가의 등장이 비등점에 달했다가 IMF를 거치면서 이들의 목소리가 급격히 사그라들었던 때를 떠올리게 된다. 지금의 리부트 현상이 장기 지속되려면, 페미니즘이 항상 당대의 사회 현상과 길항하면서 부침을 반복해 왔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되새기면서, 과잉담론화 되거나 출판과 문화산업 시장의 소비재로 쓰일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소설들을 포함하여, 페미니즘 문학의 다양한 결들을 사회 혹은 문화 ‘현상’이 아닌 문학의 자리에서 논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⁴⁴

“사회 현상과 길항하면서 부침을 반복해 왔다는 상식적인 진리”를 언급하면서 일련의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이 소비된 후 다시 침체될 것을 우려하는 위의 진단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적 이슈’와 ‘여성문학’의 접속에 대한 고민,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모색을 잠시 살펴볼 수 있는 47호의 발간사의 한 대목을 인용해본다. 47호부터 새롭게 기획된 코너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여성 작가 다시 읽기”에 대해 편집위원장 김은하는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여성 작가 다시 읽기”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시기부터 비교적 근래에 이르기까지 주요 여성 작가를 다시 읽는 코너를 기획했다. 2015-2016년도 #문단 내 성폭력 해시 태그 운동 이후 한국문학사의 영예로 간주되던 (남성) 작가들의 이름은 가부장적 지배 질서의 카르텔은 아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4 앞의 글, 287쪽

그러나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단지 고발에 머물지 않으려면 젠더/섹슈얼리티 정체성을 외면하지 않는 다중적 주체들을 위한 ‘복수(複數)의 정전화’ 작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사 서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⁵

‘지금-여기’의 문제와 『여성문학연구』의 고민, 그리고 연속적인 여성문학사 계보 짜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데 모인 47호의 발간사는 『여성문학연구』의 현재성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한다. 서평란을 제외하고는 고정 기획 코너가 없던 『여성문학연구』가 47호부터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에 여성 작가 다시 읽기”라는 이름의 연속 기획을 실행기로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학회지의 응답 중 하나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그러한 응답의 방식과 세목이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모색 역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여성문학연구』가 창간된 지 21년, 2019년 10월 26일 21주년 기념 한국여성문학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2019년 만 스무 해를 맞이한 한국여성문학학회는 <’98-’19 여성-문학하다, 세상을 쓰는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총 3부로 이루어진 학술대회의 하위 주제들은 ‘제1부 여성-문학하기의 내일: 새로운 연구자의 등장’, ‘제2부 세상을 쓰는 페미니즘, 1998~2019’, ‘제3부 라운드테이블: 한국여성문학연구의 궤적’으로 구성되었다. 주제에서도 볼 수 있듯, 21주년 학술대회는 『여성문학연구』와 한국여성문학학회의 지난 스무 해를 정리하면서 동시에 학회와 학회지가 바깥의 여성문학/문화 담론의 흐름과 접촉해 온 양상과 그 궤적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그 의미를 훑어보고 앞으로 여성문학/문화 연구를 이끌어 나갈 신진 연구자들의 학문적 방향성을 살피는 21주년 학술대회는 한국 여성문학연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 전

45 김은하, 「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현재성과 그 너머」,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6쪽.

시간을 검토하면서 연속적인 계보를 완성해 가려는 학회의 노력과 의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였다.

이러한 20+1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지향성은 이 글에서 살핀 10년간의 『여성문학연구』의 학문적 기억과도 같은 맥락이다. 여성문학의 단절성을 벗어나 새로운 연속성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위해 여성문학을 분절하거나 왜곡시키는 굴절점들이나 착시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화 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화해 온 지난 궤적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젠더적 관점에서 한국문학사에 접근하거나 80년대 여성문학에 대한 역사화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최근 다양한 지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여성문학연구』가 학계 바깥의 지면들과 서로 교호하면서 한국문학 전체에 대한 재구와 재의미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뿐 아니라 ‘혐오’와 ‘난민’, ‘페미니즘 대중화 이슈’ 등, 『여성문학연구』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의제들이 이전보다 ‘현재적인 이슈들’이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는 최근 몇 년 간 한국 사회가 겪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 진통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문적, 이론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제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발전적으로 재생산하며 ‘지금-여기’의 여성 문제를 다루는데 현재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는 일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한 발굴과 확장의 방식이 앞으로의 새로운 10년간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모색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여성문학연구』 제23호~47호

『연합뉴스』

통계청 홈페이지 kostat.go.kr

단행본

김양선, 『한국 근현대 여성문학 장의 형성』, 소명출판, 2012.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정영자, 『한국현대여성문학사』, 세종출판사, 2010.

논문

권명아, 「비교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정동 연구의 사회적 의제: 여자 때 공포와 다스려질 수 없는 힘」, 『여성문학연구』 제3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8쪽.

김복순, 「여성-노동소설의 일 계보-김인숙의 경우」,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09~152쪽.

김소륜, 「탈북 여성을 향한 세 겹의 시선: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탈북 여성의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고찰」, 『여성문학연구』 제4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09~143쪽.

김양선, 「근대 여성 작가의 지식 지성 생산에 대한 계보학적 탐색」, 『여성문학연구』 제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7~30쪽.

김양선, 「한국 여성문학 연구 장의 변전과 과제-〈한국여성문학학회〉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645~669쪽.

_____,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645~669쪽.

_____, 「페미니즘 리부트와 ‘김지영’ 현상-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여성문학연구』 제4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83~287쪽.

김연숙, 「가정소설의 번역과 젠더의 기획- 여성번역문학사 정립을 위한 시론」,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115~141쪽.

김영선, 「197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번역」,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39~62쪽.

김은하, 「탈북여성과 공감/혐오의 문화정치학」,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91~314쪽.

_____, 「여성들의 정치 혁명과 페미니스트 팸플릿으로서 글쓰기: 박완서의

- 1980년 여성해방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_____, 「발간사-페미니즘 지식 문화의 현재성과 그 너머」,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3~8쪽.
- 김주희, 「우에노 치즈코의 젠더-본질주의 비판」,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3~53쪽.
- 손희정, 「혐오와 절합하고 경합하는 정동들」,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17~141쪽.
- 신선태, 「박완서 장편소설 서있는 여자의 페미니즘 정치학적 의미-결혼이라는 계약을 통해 본 시민성의 젠더구조」,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71쪽.
- 이명호, 「젠더지형의 변화와 페미니즘의 미래」,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33~161쪽.
- 이상경, 「박완서와 근대문학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7~27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또 하나의 문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쪽.
- 이경하, 「여성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에 관하여」, 『여성문학연구』 제11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377~400쪽.
- 이영아, 「‘여성혐오’의 문학문화사-젠더적 관점의 한국 근대문학문화사 서술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논총』 37권 4호,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13~48쪽.
- 이혜령, 「신여성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문지방들-목가적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식민지 섹슈얼리티 연구를 돌아보며」, 『여성문학연구』 제3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4, 103~132쪽.
- _____,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제47호,

상허학회, 2016, 409~454쪽.

임지연, 「여성문학트러블」, 『여성문학연구』 제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03~132쪽.

조현준, 「나에서 우리로, 젠더에서 인간으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과 젠더 허물기 비교 연구」,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239~266쪽.

허윤, 「페미니즘 2.0」, 『여성문학연구』 제3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453~463쪽.

_____, 「포스트 세계문학과 여성-이주-장편서사의 윤리학 : 황석영의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3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73~98쪽.

Abstract

The present and present state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Oh, Ja-eun

The article was written to review the agenda that the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has produced to mark its 21st anniversary, while also looking at how Women's Literature Research has developed. To that end, we reviewed the results and meanings of the 10 years of the Women's Literature Research published from 2010 to 2019. First of all, for 10 years, we have classified the special plans, feature papers, and general papers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subject of the study, limited to the section of 'Modern Literature' as a preliminary. We also looked at the mainly cited theorists and looked at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time.

The problems that Women's Literature Research has encountered over the past decade are largely twofold. It is a matter of overcoming the disconnects from women's literature and securing new continuity. In particular, it is believed that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setting the stage for re-implication of Korean literature as a whole.

In addition, other important features such as disgust, refugees and feminism popularization issues looked at the recent agenda items presented by women's literature research as "present issues." This is an active academic response from the Women's Literature Study to variou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Korean society has experienced in recent years. But beyond accepting these agenda items widely and dealing with women's issues, we should now make efforts to find "new agenda" that we should address in the future.

There should also be a continuing search for how such a method should move forward.

Key words: 〈The Academic Society of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History of Women's Literature Research, Popularization of feminism.

본 논문은 2019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9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 1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